

# 고위공직자 감찰 강화 · 출입통제 개선

### 전북교육감직 인수위, 특별감찰위 설치 · 청사 개방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도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위공직자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 기능을 강화하는 '특별감찰위원회' 설치를 검토하는 한편 교육청 청사 출입통제시스템을 개선해 도민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인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회의를 열고 교육청 내 고위공직자 비위 의혹과 부패 취약 분야에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특별감찰위원회 설치

방안을 논의했다. 인수위는 기존 감사 체계만으로는 고위공직자나 주요 간부 관련 사안에서 이해충돌이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인사·채용·계약·시설공사 등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해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감찰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현재의 감사관 제도를 폐지하고 감사와 감찰 기능을 통합한 특별감찰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

토하고 있다. 기존 감사관 인력과 기능은 특별감찰위원회로 재배치하고 법률·회계·감사 분야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조사 과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도민과의 소통 확대를 위해 분청 청사 출입통제시스템 개선도 완료했다. 교육청은 본관 1층 로비에 설치됐던 출입통제시스템을 철거해 민원인과 방문객의 접근성을 높이면서도 부서별 보안관리 체계는 유지하기로 했다.

앞으로 민원인과 방문객은 청사 관리실 또는 안내데스크에서 방문 목적과 해당 부서를 확인한 뒤 안내를 받

아 출입할 수 있으며, 직원은 기존과 같이 등록된 출입증을 이용해 출입하게 된다. 주요 행사나 단체 방문 시에는 주관 부서가 현장 안내를 강화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에는 방호 인력을 운영해 청사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전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당선자는 "청사는 도민을 위한 공간인 만큼 불필요한 장벽은 낮추고 필요한 보안은 더욱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며 "교육청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열린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 군산교육지원청, 고교

### 정기교사 복도 감독 인력 확대

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성기)이 고등학교 정기교사의 공정성을 높이고 교원들의 감독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복도감독 인력지원 사업을 전면 확대한다.

군산교육지원청은 오는 7월 3일까지 실시되는 1학기 2차고사 기간 동안 관내 24학급 이상 6개 고등학교에 총 30명의 외부 복도감독관을 배치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군산교육지원청이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한 결과 참여 교사의 95%가 만족감을 나타내고, 전원이 업무 경감 효과를 체감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특히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선택과목과 시험실이 늘어나면서 감독 인력 부족 문제가 대두되자 이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추진됐다.

군산교육지원청은 공무원연금공과 협력해 퇴직 교원 중심의 전문 인력풀 47명을 구축했으며, 성별과 경력 조화 및 친인척 재학 학교 배제 제외 확인, 사전 직무교육을 모두 마쳐 신뢰성을 높였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대학수학능력시험용 급속탐지기 30대를 새롭게 도입해 시험 현장에 배치한다. 복도감독관들은 급속탐지기를 활용한 휴대용 점검과 화장실 이용 학생 동행 시험본부와의 실시간 소통 등을 담당하며 시험장 내 질서 유지와 부정행위 예방을 지원하게 된다. /오상근 기자

### 전북교육청, 유아 언어문화

### 다양성 교육 시범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유아기부터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언어문화다양성 교육 기반 조성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교육청은 생황과 예술 놀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언어문화다양성 요소를 반영해 진행하고, 의사소통 활동을 포함한 유아 중심 교육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접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전북교육청은 시범기관 간 교사 연수와 기관 자체 연수 자율적 학습공동체 운영 등을 통해 교원의 언어문화다양성 교육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력을 언어·문화 나눔 자원봉사자로 활용해 유아들의 다양한 문화 경험을 확대하는 프로그램도 필수적으로 운영한다. /오상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김재 지평선고등학교가 국제비칼로레아(IBC) 본부(BO)로부터 고등학교 과정인 DP(Diploma Programme) 월드스쿨 인증을 획득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 지평선고, 전북 첫 IB 고교과정 월드스쿨 인증

### IB DP 도입으로 초·중·고 연계 교육체계 완성... 탐구·성장 중심 교육 본격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김재 지평선고등학교(교장 안성균)가 국제비칼로레아(IBC) 본부(BO)로부터 고등학교 과정인 DP(Diploma Programme) 월드스쿨 인증을 획득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전북지역 고등학교가 IB DP 월드스쿨 인증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북은 초등학교 과정(PYP)과 중학교 과정(MYP)에 이어 고등학교 과정(DP)까지 IB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대안교육 특성화고인 지평선고는 '지평선을 넘어 새로운 배움'을 교육 비전으로 도서관 중심의 독서·토론 교육과 인문학 탐구, 생태 감수성 교

육 등을 운영해 왔다. 앞으로는 이러한 대안교육의 강점을 IB DP의 체계적인 수업과 평가 시스템에 접목해 학생 주도형 교육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학교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며 자기 성장을 통해 배움을 확장하는 교육을 강화하고, 독서·인문·생태 중심 교육을 더욱 심화해 학생 개인의 성장과 자기주도적 역량을 키워나갈 방침이다.

또한 탐구와 논술 중심의 IB DP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탐구 과정과 성장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어 학생부종합전형은 물론

·서울형 평가와 사교육·표현력을 강조하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변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영 전북교육청 미래교육과장은 "전북 첫 IB DP 월드스쿨 인증은 수업과 평가 혁신을 학교 현장에 안착시킨 의미 있는 성과"라며 "지평선고를 거점으로 학생 주도형 수업과 성장 중심 평가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성균 교장은 "전북 첫 IB DP 인증 교라는 책임감을 갖고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해 학생 한 명 한 명의 값 있는 성장과 미래 역량 함양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 전국 태권도인들, 우석대서 '격돌'

### 우석대, 제24회 총장기 전국태권도대회

### 15~23일 전주캠퍼스에서... 3692명 참가

우석대학교(총장 박도준)가 오는 7월 15일부터 23일까지 전주캠퍼스 체육관에서 '제24회 총장기 전국태권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우석대학교와 대한태권도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태권도학과와 산학협력단이 주관한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완주군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완주군의회,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 완주군체육회, 전북특별자치도태권도협회, 완주군태권도협회, 전북일보, 우석대학교 부속 전주한방병원 등이 후원기관으로 참여한다.

대회는 품새와 격파, 겨루기 등 3개 종목으로 나눠 진행되며 전국에서 3692명의 선수가 참가해 기량을 겨룬다.

품새 경기는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열리며 중·고등부와 대학부, 성인부, 장년부 등 총 1,610명이 출전한다. 공인품새와 자유품새 개인전 복식전 단체전 등 다양한 종목에서 경쟁을 펼친다.

격파 경기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중·고등부 선수 1,214명이 체공도와 격파와 수직·수평회전 격파, 종합격파 등 고난



도 기술을 선보인다. 21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겨루기 경기는 고등부 선수 889명(남자 647명·여자 242명)이 참가해 10개 체급별 토너먼트 방식으로 우승을 다툰다.

대회 조직위원장인 정희석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은 "전국 각지의 태권도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겨루는 뜻깊은 대회가 될 것"이라며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 운영을 통해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회식은 7월 16일 오전 11시 열리며, 우석대학교 태권도사범단과 품새단이 창작 태권도극 '신별주변'을 선보이며 격파와 품새, 액션 퍼포먼스를 펼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 2026 이차전지 고도분석 컨퍼런스 참여

### 국립군산대 이차전지 부트캠프 인력양성사업단

국립군산대학교(총장 김강주) 이차전지 부트캠프 인력양성사업단은 지난달 29일 써모 피셔 사이언티픽 코리아(Thermo Fisher Scientific Korea) 서울 수서오피스에서 열린 '2026 이차전지 고도분석 컨퍼런스'에 참여해, 재학생들의 첨단 분석기술 이해도 제고와 산업 현장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

2026 이차전지 고도분석 컨퍼런스는 이차전지 소재 및 분석 기술 분야의 최신 연구와 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산·학·연 간의 기술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최됐다.

행사는 XRF를 활용한 배터리 소재 특성 분석, 첨단 STEM 기반 배터리 소재 열화 메커니즘의 다중스케일 분석 등의 튜토리얼 세션과 이차전지 소재 분석 표준화 및 산업화 전략, '고도 분석기술 기반 이차전지 소재 분석 및 열화 해석'을 다루는 컨

퍼런스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사업단 참여 학과인 신소재공학과, 이차전지에너지학부, 첨단과학기술학부, 화학공학과, 환경공학과 3학년 재학생 40여 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이차전지 소재 분석, 전기화학적 특성 평가, 고도 분석 장비 활용 기술 등 최신 연구 동향과 산업 기술을 직접 접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전문가의 발표를 통해 차세대 배터리 기술과 품질 분석 트렌드를 학습하고,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의 네트워크를 통해 진로 탐색의 폭을 넓혔다.

한편 국립군산대학교 이차전지 부트캠프 인력양성사업단(단장 심종표)은 2024년부터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다양한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을 산학협력 활동 등을 통해 체계적인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권순=김만호기자

## 전주교육지원청, 교육거버넌스위원회 개최

### 청소년 교통비 지원 · 교육혁신 추진 논의... 지역사회 협력 강화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채선영)은 지난달 30일 청소년 교통비 지원과 교육혁신 선도지역 추진 등 지역 교육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3기 전주교육거버넌스위원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전주교육지원청 3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강동화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14명이 참석해 전주교육 발전과 교육공동체 협력 강화를 위한 주요 안건을 심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전주교육거버넌스위원회는 교육지원청과 지방자치단체,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기구로, 교육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 중심의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올해 10월 31일 임기가 종료되는 제기 위원회는 그동안 교육정책 제안과 협력사업 발굴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기반 조성에 기여해 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청소년 대중교통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개선안과 전주 교육혁신 선도지역 추진 계획, 전주교육거버넌스위원회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위원들은 청소년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육복지 향상을 위한 대중교통 지원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또 교육청과 전주시,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교육 생태계 조성 및 학생들의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강동화 위원장은 "전주교육거버넌스위원회는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교육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협력의 장"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전주교육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채선영 교육장은 "지역사회의 협력은 미래교육 실현의 중요한 기반"이라며 "교육거버넌스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 주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학생과 시민이 공감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 글로벌 방산기업과 첨단기술 분야 인재 키운다

### 전북대, BAE Systems Korea와 전략적 협력 MOU... 산학협력 · 멘토링 등 협력 추진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글로벌 방산기업 BAE Systems Korea와 손잡고 방위산업 및 첨단기술 분야 인재양성과 산학협력 확대에 나섰다.

전북대는 지난달 29일 BAE Systems Korea와 방위산업 및 국방 분야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북대가 추진 중인 첨단방산학과, 방위산업융합과정, 첨단 AI 방위산업융합 교육체계와 글로벌 방산기업의 산업 현장 경험을 연계하는 데 목적이 있다.

BAE Systems Korea는 영국 BAE Systems의 한국 내 거점으로서 국내 정부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며 방위산업 분야 사업개발과 글로벌 협력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BAE Systems는 항공, 해양, 지상, 전자체계, 사이버 및 첨단 방위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글로벌 방산기업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방위산업 및 국방 분야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



주요 협력 분야는 △방위산업 교육·연구 및 인력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방산 분야 창의·혁신 인재 발굴 △BAE Systems Korea 전문가 특강 세미나, 워크숍, 마스터클래스 운영 △전북대 주관 방산 포럼 및 컨퍼런스 참여 △우수 학생 대상 인턴십 및 진로·취업 멘토링 등이다.

특히 전북대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이 글로벌 방산기업의 실제 산업 현장과 기술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BAE Systems Korea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특강과

세미나 마스터클래스 등을 통해 학생들은 글로벌 방산시장, 첨단기술 개발, 사업개발 국제협력 등 실무 중심의 지식을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 기관은 전북대 첨단방산학과, 방위산업융합과정, 첨단 AI 방위산업융합 프로그램 등에 재학 중인 우수 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인턴십 기회와 진로·취업 멘토링 프로그램을 검토·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북대 학생들이 글로벌 방산기업과 연계된 실무 경험을 쌓고, 향후 K-방산을 이끌 전문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협약은 전북대가 글로벌 방산기업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전북대는 지난 4월 글로벌 방산기업 테라스와 전략적 협력을 체결한 데 이어, BAE Systems Korea와도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방산 인재양성 플랫폼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게 됐다. /김재훈 기자